

기상뉴스사랑

www.kma.go.kr Vol.390

2013. December **12**

송년특집

2013년 기상청 10대 뉴스

날씨 에세이

날씨 따라 떠나는 도시 여행

포커스

문산기상대, 파주기상대로 거듭나다

2030 솔로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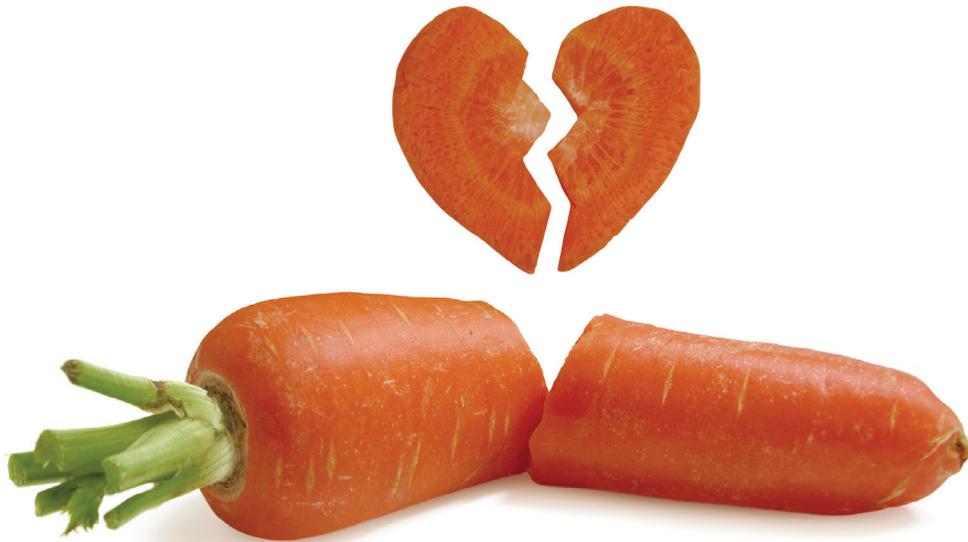
크리스마스 솔로 생존기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야근이 당근?



수요일 정시퇴근
가족과 함께 지내요

December 12



Contents

KMA Special Issue

- 송년특집 2013년 기상청 10대 뉴스 · 02
- 응답하라 2013 · 06
- 날씨 에세이 날씨 따라 떠나는 도시 여행 · 08

KMA About

- 열린마당 기상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 10
- 기상청의 자랑! '레인보우 합창단' · 12
- '열정! 기후변화 체험단'을 마치며 · 14
- '날씨사랑 글·그림 큰잔치' 대상의 영광을 안다 · 16
- '기상천외 UCC 공모' 최우수상을 받은 비결! · 18
- "안녕하세요, 충주기상대입니다!" · 20
- 내게 주어진 네 가지 삶 · 22
- 포커스 문산기상대, 파주기상대로 거듭나다 · 24
- 2030 솔로탈출 크리스마스 솔로 생존기 · 26

KMA Hope

- 공익광고 한파 피해 예방 캠페인 · 28
- 날씨만화 10일 예보 · 29
- 포토뉴스 · 30
- 퀴즈 · 32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거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2013년 12월호(통권 39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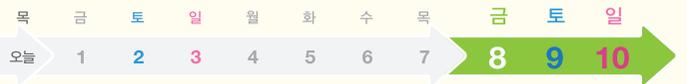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6 팩스 (02)836-5472
E-mail kimhy80@korea.kr 발행일자 2013년 12월 11일 발행처 기상청 발행인 교윤화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편집장 정관영 편집기획 대변인실
디자인/인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31)906-7735

2013년 기상청 10대 뉴스

기상청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결과 외의 10대 뉴스 후보로는 ▲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 및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MOU 체결 ▲ 사내방송 '다락방' 정규방송 시작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기상청(웨더맨, 날씨패션쇼, 우산공모전 개최) 등이 올랐다. 올해 성과와 한반도의 특이 기상현상 등 주요 이슈가 되었던 '기상청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 편집진

‘10일 예보’ 대국민 시범 운영 개시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위험기상의 선제 대응을 위해 예보 서비스를 개편하였다. 기존의 '주간예보(7일)'에서 예보기간을 3일 늘린 '10일 예보(중기예보)'로 변경하여 10월 15일부터 대국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0일 예보는 하루에 두 번 발표하며 기상청 홈페이지, 모바일 웹, 날씨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과 산업계 등에서는 10일 예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보다 나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 10일 예보,
국민 행복을 예보합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 행정기관분야 대상 수상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1990년부터 매일경제신문과 부즈&컴퍼니가 수여해온 ‘지식혁신대상’과 안전행정부의 ‘지식행정대상’을 지난해 하나로 통합한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행정기관 부문에서 기상청,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부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기상청은 선진예보시스템을 구축해 예보 정확도를 2007년 85%에서 2012년 92.1%로 향상시킨 점을 인정받았다.

국립기상연구소 제주시대 개막 및 국제조정사무소 개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에 따라 국립기상연구소가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지난 6월 청사 준공에 이어 청사 점검, 시범 운영 등을 거쳐 내년 2월엔 연구소 전 직원이 이전을 완료하며, 3월에 개소식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 지난 11월 5일, 기상 예보 능력 향상을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조정하는 국제조정사무소도 서귀포 혁신도시에 개소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국제조정사무소는 기존의 단기·중기예보(현재~10일)와 기후예측(3개월 이상)을 보완하는 ‘2개월 장기예측(Subseasonal to Seasonal Prediction : S2S, 기존 단기예측과 장기예측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2주~2개월 기간에 대한 기상예측 향상 프로젝트로, 국제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을 위해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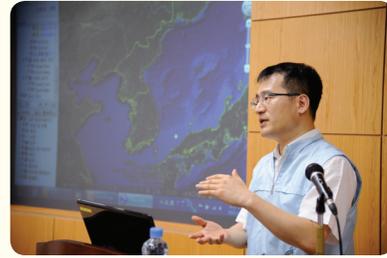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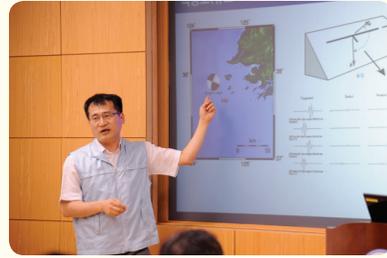
기상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범

직원들의 권익보호와 조직 활성화를 위해 기상청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9월 23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초대회장으로는 조구희 주무관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력 향상, 고충사항 해결 등을 위한 기관장과의 협의를 자주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해안 잇따른 지진 발생

올해는 기상청의 지진관측 역사상 가장 이례적으로 지진활동이 활발한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월 18일 인천시 백령도 남쪽 해역과 4월 21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해역에서 각각 규모 4.9의 지진이 감지됐다. 6월에는 서해안 어청도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3의 지진을 비롯해 보령앞바다에서만 11번이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2.1~2.8로 크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세계기상기구 고위직 첫 진출

지난 1월, 박정규 전 기획조정관이 기상기후 분야의 UN 산하 전문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의 아태지역국장으로 선출됐다. 이는 기상청이 설립된 1948년 이래 국제기구 고위직에 진출한 최초의 쾌거이며, 기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

세계기상정보센터 개소

6월 13일, 기상청에서 전 세계의 기상자료를 유통 관리하는 세계기상정보센터(GISC 서울 : Global Information System Centre Seoul)의 개소식을 가졌다. 세계기상기구의 승인을 받아 세계에서 6번째로 유치하게 된 세계기상정보센터는 세계기상통신망의 최상위 센터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일본, 중국을 경유해 제공받던 세계기상정보를 직접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책임영역 국가 확보와 국내외 하부센터의 자료 관리도 책임지게 됐다.



2013년 기상청 10대 뉴스

연론, 기상장비 도입 문제 확대 부각

기상청의 부실장비 도입과 입찰 관련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상청은 그동안 항공기상장비 도입 비리 의혹은 물론 내부 파벌 논란 등으로 내홍을 겪어왔다. 이에 9월 취임한 고윤화 청장은 기상청 조직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데 비해 내부 역량은 부족했던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추스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장 장마기간 기록 및 '거꾸로 장마'

올해 장마는 6월 17일에 중부지방에서 시작하여 8월 4일 종료되었다(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6월 18일에 시작하여 8월 2일, 7월 26일에 각각 종료). 이는 평년(32일)보다 무려 17일이나 긴 것으로 역대 최장 장마기간으로 기록됐다. 또한 이례적으로 제주도가 아닌 중부지방부터 장맛비가 뿌려져 '거꾸로 장마'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1981년 이후 32년만의 일이며,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상층기압골에 의해 장마전선이 중부서해안에 걸쳐 활성화되면서 중부지방에서 먼저 장마가 시작됐다.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기상지원 및 기상항공기 계약 체결

날씨에 민감한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상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전준비를 해왔다. 이에 경기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상세기상정보를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지원하였다. 또한 기상청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을 위한 계약도 체결되었다. 항공기 운영의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5년 하반기에 King Air 350 HW 1대를 인수한 뒤, 2016년부터 정규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가요?

응답하라 2013

기상가족들이 직접 뽑은 2013년의
소중한 순간들을 모아봤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큰 사건일 수도,
아주 소소한 추억일 수도 있는데요.
한 순간의 모습이지만 영원히 기억
될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세요!



2013년도! 기상청 역사상 최초로 진주기상대에서만 무려 3명이나 결혼식을
올리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5월 18일 손웅기! 두 번째 주자는 6월 22일 이영임!
마지막 주자는 12월 14일 최경연입니다.



9월에 시어머니의 환갑을 맞아 가족들과 북경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시부모님께선 해외여행이 처음이셨는데요, 집에 돌아가길 아쉬워하실 정도로
무척 즐거워하셨습니다. 저 또한 참 뿌듯했는데요,
앞으로 가족과 함께 이런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야겠습니다.

임명진 / 동두천기상대



지난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계절이었습니다.
바로 '신규자 조직적응능력 향상과정'
으로 바쁜 여름을 보냈기 때문인데요,
“전국의 동기들이야, 보고 싶다!”

김연직 / 백령도기상대



지난달에 관악산으로 '10일 예보'
홍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기상이' 인형탈을 옮기느라
엄청 고생했는데요.
그래도 산 정상에서 홍보 손수건을
받고 기뻐하는 분들 덕분에 기운이
번쩍 났습니다.

박영주 / 대변인실



“다함께 즐기는 방송! 안녕하세요, '다락방' DJ 백덕인입니다.”
사내방송 '다락방'이 지난 1월에 개국했는데요, 이번 12월에 100회를 맞이합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첫 방송의 설렘과 그 떨림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네백대기도 하는 DJ이지만, 함께 즐기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백덕인 / 기상산업정책과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러 갔는데요,
다들 삽과 제가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왜 그럴까요?

김태희 / 지진감시과



무더웠던 지난여름, 땀 흘리는 직원들을
위해 직접 팔빙수를 만들어줬습니다.
제작은 정성에 사람들이 참 기뻐해서
결로 신이 났는데요,
자, 내년 여름에도 팔빙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득균 / 관측정책과



동해 같지만... 사실 지중해입니다.
'제16차 WMO 대기과학위원회'
참석으로 터키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바라본 지중해! 그 잊지
못할 바다가 벌써 또 그리워집니다.

정윤선 / 국제협력담당관실

날씨 따라 떠나는 도시 여행



박태진 / 이투데이 기자

세계 여러 도시들을 여행할 때 어디에 맛있는 음식 점이 있는지, 어디가 관광명소인지에 대한 정보는 서점에 나열된 국가별 여행관련 도서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하지만 언제, 어느 계절에 맞춰 여행을 하면 그 도시가 더 아름답게 보일지, 또는 맑은 날이 아닌 다른 기상 조건을 만났을 때 묘한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적으로 언급해 놓은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철저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날씨, 계절, 시간’으로 테마를 나눠 각 도시를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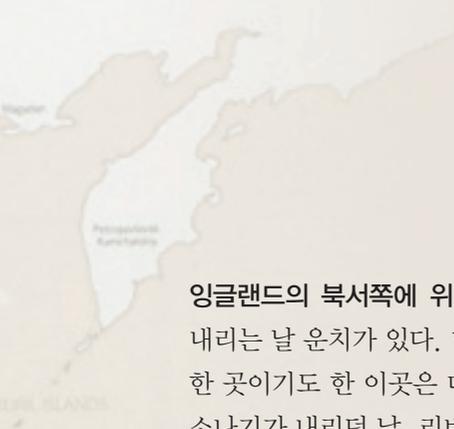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약 170km 거리에 있는 ‘하롱베이’는 현지 최고의 명승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특히 배를 타고 갈수록, 여러 바위들과 작은 산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신기하고도 묘한 느낌까지 전해준다. 현대 직장인들은 흐린 날을 보면 기분이 우울하다고 하지만, 하롱베이에서는 신기하게도 평온함이 가득하다. 국내 대표 항공사의 광고에 나오기도 했을 정도로 흐린 날이 아름다운 곳임에는 틀림이 없다.

먼저, 스코틀랜드의 수도이자 심장인 ‘에든버러’는 맑은 날보다 흐린 날에 특유의 멋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구름 낀 날은 고대의 요새로 이곳을 상징하는 에든버러성의 웅장함이 그대로 펼쳐진다. 스코틀랜드의 자유와 독립을 그린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서 흐린 날이 자주 등장했던 것도, 현지 사람들만의 용맹함을 표출하기에 적합한 날씨였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뉴질랜드의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는 날씨가 수없이 바뀐다. 하루에 해, 비, 바람, 구름 등의 네 가지 날씨 요건을 다 표출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비가 내리도 우산이 필요 없을 정도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면 그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처음엔 한국 사람으로서 변화무쌍한 날씨에 화도 났지만, 한 번 경험한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신기한 기상 조건이라는 생각에 실컷 즐기기가까지 했다.

- ① 베트남 하롱베이. 주위의 섬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묘한 느낌을 준다.
- ② 필리핀 마닐라 북부. 원주민 마을을 찾았을 때 경험한 장대비는 잊지 못할 것이다.





잉글랜드의 북서쪽에 위치한 항구도시 **‘리버풀’**은 비 내리는 날 운치가 있다. 현지 유명 화가들이 많이 탄생한 곳이기도 한 이곳은 대형 박물관들이 곳곳에 있다. 소나기가 내리던 날, 리버풀 시내의 한 박물관 입구 계단에 앉아 바라본 시내 풍경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다. 질서 있는 교통문화와 사람들의 여유 넘치는 미소, 그리고 운치 있게 내리는 비는 ‘예술도시’ 리버풀의 매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태풍이 많이 찾아오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엔 비도 많이 내린다. 한 번 내릴 때 장대처럼 끊임없이 쏟아지는데, 열대 우림기후 속에 살고 있는 느낌이 들게 한다. 국내 짐통터위에 시달린 사람이라면 마닐라 인근에 위치한 수목원 휴양지를 추천 여행지로 권하고 싶다. 시원하게 내리는 빗속에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미국 뉴욕. 수많은 갈색 빌딩에 노을빛이 물들면 색다른 매력이 가득하다.
- ④ 일본 교토. ‘후시미이나리 신사’의 주홍색 도리이를 통과할 때 선선함을 느낄 수 있다.



③



④

이번엔 계절에 따라 추천하고 싶은 도시들에 대해 얘기해볼까 한다. 우선, **봄에는 맑은 하늘이 아름다운 이탈리아 ‘피렌체’**가 있다. 이탈리아는 겨울에서 초봄 사이가 우기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린다. 그러나 4월이 지나고 5월로 접어들면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봄날이 찾아온다. 르네상스 시대의 부흥과 낭만을 느끼고 싶다면, 파란 하늘이 예쁜 이 도시를 봄에 여행해보는 것이 좋다.

한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보내고 싶다면 일본 **‘교토’**를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이곳은 무더위가 한창인 8월 초에도 습도가 높은 도쿄와 달리 시원함이 감돈다. 특히 교토의 ‘후시미이나리 신사’에서는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 또 숲이 관광명소를 둘러싸고 있어, 내리쬐는 따가운 햇살을 피하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다.

가을의 선선함을 느끼고 싶다면 미국의 항구도시인 **‘보스턴’**을 추천한다. 8월말부터 가을 날씨를 보이는 이곳은 한낮에도 햇빛이 따갑지 않고, 시내를 향하거나 공원을 거닐 때엔 상쾌함마저 느껴진다. 메이저리그 프로 야구팀인 ‘레드삭스’의 홈이기도 한 이 도시는 이 같은 기후 영향 때문인지 가을 야구의 명가로 거듭났다.

겨울에 뜨거움을 즐기려면 해변이 있는 호주의 **‘골드코스트’**와 **‘멜버른’**을 추천한다. 아울러 아침, 한낮, 오후, 저녁 등 시간대별로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도시에 대해 얘기하자면,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산책하기 좋은 곳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이다. 노을이 질 때 아름다운 곳은 미국의 ‘뉴욕’, 저녁 운동 및 산책하기 좋은 곳은 영국의 ‘런던’, 또 야경이 예쁜 ‘시드니’와 ‘홍콩’ 등도 꼽을 수 있다.

하늘이 선사한 햇살과 바람, 비, 눈, 구름 등을 마음껏 보고 즐기고 자연이 준 선물에 감사함도 느끼면서 ‘계절, 날씨 테마에 맞춰 떠나는 이색 여행’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비록 혼자 떠나더라도 자연이 준 선물은 인간과 항상 함께하기에 외롭지 않을 것이다.

기상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우리가 바꾸어 나갈
기상청의 문화를 기대하며...

조구희 / 직장협의회장

지난 7월말 '직장협의회 설립 모임'의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기상청도 점점 변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 '왜 직장협의회나 공무원 노동조합이 없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답변을 의욕적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

간혹 우스갯소리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있어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할 것과 반대로 제일 늦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는데,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은 후자에 속한다는 말을 흘러들었던 기억만 있을 뿐이었다. 그 의미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직장의 분위기와 사회적 상황, 또 중앙부처로서 힘이 없는 축에 속하는 기관으로서의 한계 등이 포함된 함축적인 소리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직장협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면,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여러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를 포함한 6명의 주무관(남숙영, 배선희, 이경철, 이재성, 한성민)이 모여 연구모임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첫 출발은 연구모임의 참여율을 높여서 직장협의회회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것이었는데, 2주 만에 120여명이 넘

는 직원들의 가입으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직장협의회 연구모임은 앞서 직장협의회가 운영된 조달청과 안전행정부 등의 회칙, 운영사례 등을 검토하면서 설립 총회를 준비하였다. 또한 총회 진행 사항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참석 예상 인원과 회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 등을 철저히 준비했다.

9월 12일 저녁, 기상청 1층 회의실에 50여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참석하여 직장협의회 설립 총회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 자리에서 회장(조구희) 및 8명의 임원(한성민, 배선희, 황수남, 권기숙, 박영주, 이재일, 김복희, 박옥란)이 선출되었고, 회칙 심의 및 의결 등도 이루어졌다. 이후 기상청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립됨을 운영지원과에 통보(설립사실통보서, 회칙, 회원명부)하였고, 드디어 9월 23일에 설립증을 인수하게 되었다. 두 달여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이지만, 과거에 선배들이 몇 번을 추진하다 중단됐던 아픔이 밀거름이 된 것이기도 했다. 다시 한 번 직장협의회 설립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선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처음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만약 내가 협의회 위원으로 선출된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머리를 아프게 했다. 그런데 내가 기상청 6급 이하 직원들을 대표하는 직장협의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설마 했던 것이 현실이 되자, 가슴 한편에 엄청난 두려움과 막연함이 밀려왔다. 가끔 워싱턴한테 거리가 없이 이야기는 하는 편이어서 뒤늦게 상황을 정리하며 후회하는 성격인데, 어떻게 회장이 되어 이끌고 갈 수 있을지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래도 나를 추천하고 선택해준 회원들을 믿고, 최선을 다해 잘해보리라 다짐해 본다.

직장협의회 설립 인가증을 교부받고 청장님, 운영지원과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본적인 사무실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11월 8일, 청장·차장님을 비롯한 많은 간부들과 직장협의회 회원들의 축하 속에 현판식을 거행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최근 협의회 위원들은 '기상청 정부3.0 소통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6급 이하 실무자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청 내 다양한 소통의 자리에 참여하여 상하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향후 협의회 회원들의 설문을 통해, 근무환경 및 직장문화 개선, 그리고 업무 고충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6급 이하 직원들의 통일된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직장문화가 일부 관리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6급 이하 직원들에 의해, 직원들에 의한, 직원들을 위한 직장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굳

게 믿는다. 물론,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싶다. 나와 협의회 위원들은 부서에서 맡은 업무와 직장협의회 업무 두 가지 모두를 쫓아야 하지만, 책임감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임(소속 부서장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회원들에게 약속하고 싶다. 기상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다른 기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소통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협의회로 자리 잡을 것이다.

환경부 노동조합, 안전행정부 직장협의회 등의 소통방식이 우리 기상청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체감 만족도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 "일을 함에 있어 똑같은 에너지를 쏟아내지만, 받는 직원의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업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현 정부에서 최접점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려는 정부3.0의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에 대한 작은 현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11월 현재, 기상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원은 가입대상 총 230여 명 중 173명이 가입한 상태이다. 소속기관에서는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직장협의회(회장 신대운)가 설립·운영 중에 있다. 또한 부산, 강원, 제주에서는 협의회 설립을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신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그 외의 기관에서도 직장협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기상청의 자랑! '레인보우합창단'



김세원 / 레인보우합창단장



2차 예선



본선 경연



동상 수상

기상청에 합창단이 있다. 그런데 그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7회 공무원음악대전'에서 최종 16팀이 겨루는 본선에 진출한 것도 모자라, 동상까지 수상했으니 말이다.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했던 일이 이런 영광스런 결과를 낳다니! 정말 나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는다. 하기야 순수 아마추어, 특히나 공무원들이 참여한 음악대전에 얼마나 대단한 실력자들이 있을까 생각하면 그다지 말이 안 되는 일도 아닐 것이다. 그동안 함께 수고해준 합창단원 모두와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이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바쁜 일터에서 이처럼 하나로 뭉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합창단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처음 '레인보우합창단'을 만들 땐, 노래는 개인의 열정만 있으면 훈련을 통해 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 인원만 채워지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

각했다. 하지만 모집은 물론이고 인원 유지하는 일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먼저 합창단에는 노래하는 이와 곡 전체를 소화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지휘자가 필요하다. 또한 준 프로급의 피아노 연주자도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우리 에겐 마치 합창단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 같은 기막힌 자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지금으로부터 꼭 3년 전에 기상청 합창단이 결성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함께 노래 부르며 종종 동료들에게 하모니를 들려주고, 가끔씩 보라매병원에서 환우들을 위로하는 공연도 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머지않아 우리 레인보우합창단의 큰 힘이 되었던 국립기상연구소의 단원들과 헤어져야 한다. 제주로 연구소가 이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이별인 것이다. 보라매공원의 한 울타



합창단 MT



대기실

리 안에서 함께 노래 부르던 그들은 머지않아 제주로 떠난다. 아마도 지금처럼 다시 뭉쳐 노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 영상을 통해서 연습할까? 하지만 IT가 암만 발달해도, 어깨 부비며 전해지는 그 감동을 어찌 대신할 수 있으랴!

그 감동의 여운을 더욱 진한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우리는 무모할 것 같은 ‘공무원음악대전’에 도전했다. 노래는 그동안의 공연에서 가장 호응을 받았던 ‘최진사댁 셋째딸’로 정하였다. 곡도 좋고 적어도 수십 번은 불러본 이 노래라면, 왠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더니 진짜 1차 심사와 2차 예선을 거뜬히 통과했다. 총 214팀이 참가해서 최종 본선에는 16팀만 진출했으니, 무려 12대 1의 경쟁을 뚫은 것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부터 출전할 걸 하는 아쉬움도 들었다.

이제 무대는 막을 내렸다. 연극이 끝난 후의 무대는 더욱 쓸쓸하다던데, 그간의 마음 상함과 기쁨이 교차했다. 그리고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헤어지는 단원들의 그 뒷모습들이 왠지 쓸쓸해 보였다. 그래도 소중한 추억이 더해진 이날의 기억이 오래오래 가슴에 남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 합창단원이 ‘빨주노초과남보’의 각 음절을 따서 지은 멋진 시를 소개한다.

빨강의 열정으로
주황의 설렘과
노랑의 수줍음을 안고
초록의 신비한 화음을 찾아
파랑색 희망의 노래들을 부르며
남색 짙은 꿈을 꾸었던
보랏빛 사랑의 하모니

그냥 노래가 좋아
하모니가 좋아
모이는 그곳이 어디든
열심히 즐겁게
노래한 ‘레인보우’ 파이팅!

‘열정! 기후변화 체험단’을 마치며...



강효진 / 강릉원주대 3년

대기환경과학과를 다니지만, 기상청 체험행사에 참여하긴 처음이었다. ‘기후가 변해봤자 얼마나 변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활동해 보니 기후변화가 절로 실감났다.

사실 난, 기후변화를 믿지 않았다. 기후변화라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지구의 세차운동이라든가 자전 주기의 변화, 아니면 단지 소비하기가 올 차례여서 더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 바다에 존재하는 석회암들이 녹아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지구가 온실효과를 받는 것도 같았다. 하지만 강원지방기상청에서 보여준 자료들에서 짧은 시간 안에 기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아! 정말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고성 녹차밭으로 간대!”

기후변화 체험단 행사 장소에 대해 알아볼 때 들었던 말이다. 이때만 해도 ‘고성이 아니라 보성이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고성에 녹차밭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강원도에 있는 고성 녹차밭은 신기하게도 속초나 강릉과 다르게 봄 날씨처럼 따뜻했다. 분명 고성은 강릉과 같은 영동지방인데, 기후부터가 다른 기분이었다. 게다가 최북단인데도 불구하고 포근하기까지 했다.

해안 침식 현장도 다녀왔는데, 이곳도 참 놀라웠다. 아파트 앞 20~30cm 정도에 바로 바다가 있었다. 바다가 계속 모래를 쓸고 가서 시멘트로 막아놨는데, 그 모습이 진짜 아찔했다. 만약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한다면, 이 아파트는 과연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됐다.

그 다음엔 속초기상대에도 갔다. 동네예보관이신 동문 선배님도 계셔서 반가웠고, 레인존데를 날려보는 체험도 할 수 있었다. 내가 시범조교를 하겠다고 손을 ‘번쩍’ 들어서 하게 됐는데, 1학년 때부터 다녀온 관측여행에서 매년 같은 레인존데(약 15만원)만 날리다가 프랑스산 존데(약 60만원)를 날려보게 되어 좋았다. 풍선이 엄청 커서 놀라웠는데, 막상 들고 있지니 너무나 무거웠다. 그래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선배님의 진심어린 조언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엔 숲사랑 홍보관으로 가서, 산불의 위험성에 대해 4D 영상을 시청하는 자리도 가졌다.

아직 진로를 뚜렷하게 정하지 않은 내게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매년 이런 행사를 해서 후배들도 좋은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윤창숙 / 관동대 4년

‘열정! 기후변화 체험단’ 활동은 하루 동안 영동지방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지역을 알아보거나, 기상청을 답사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후변화를 눈으로 귀로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강원지방기상청에서 주최한 기후변화 체험단은 이제 곧 졸업을 앞둔 내겐 최고의 하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 전보다 급격히 더워졌거나, 겨울이 전보다 추워진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다지 깊게 생각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 참여로 지구온난화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직접 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됐다.

기후변화 체험단은 내게 최고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비용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전혀 없었고

교통편도 매우 편리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만으로도 쉽게 기후변화 체험단의 의의와 행사 목적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해안 침식과 녹차밭, 고층 관측, 숲사랑 홍보관을 직접 답사했는데, 기후가 변화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직원 분들 덕분에 궁금한 점들을 모두 해결하는 계기가 됐고, 여러 지역의 기상청을 방문하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값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만, 오리엔테이션 때나 숲사랑 홍보관에서의 교육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체험이 있었다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됐을 거라 생각한다.

이번 ‘열정! 기후변화 체험단’을 한마디로 정의내리자면, ‘뽀로로’라고 표현하고 싶다. 뽀로로는 아이들에게 상당히 많은 즐거움과 가르침을 시각적인 자료와 다양한 구성을 통해 제공한다. 체험단 역시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직접 경험하고 느끼며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기상청에 대한 지식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뽀로로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뽀로로와 같은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열정! 기후변화 체험단’. 짧은 하루였지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기에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날씨사랑 글·그림 큰잔치’ 대상의 영광을 안다

창원기상대는 10월 ‘문학의 달’을 맞아 기상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 속 날씨이야기를 표현하는 ‘날씨사랑 글·그림 큰잔치’를 진행했다.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첫 행사인 만큼 417점의 작품이 성황리에 접수됐으며,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총 21점의 우수작들이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은 ‘다나스가 온 날’로 위험한 기상재해도 단결되고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잘 표현됐다는 평을 받았다.



창원기상대장 홍성대(좌), 대상수상자 이우경(우)



대상 '다나스가 온 날' 이우경(상정자초 4년)

인류는 날씨와 아주 친한 사이다. 선사시대,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날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신석기 시대에 접어들어 농사를 시작하면서 날씨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농사를 짓는 데 날씨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고, 날씨에 따라 그 해 수확량이 달라질 정도였으니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태양과 구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중요한 일 중 하나였을 것이다.

신라시대 선덕여왕이 만든 첨성대 또한,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늘을 관찰하여 날씨의 변화를 관측하고 기록했다고 한다. 뒤를 이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천문학은 중요한 일이었고 기상관측을 위해 천문대를 지었다고 배웠다.

현대에는 농사를 하거나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다른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날씨는 요즘 사람들에게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태어난 2003년 9월에 ‘매미’라는 태풍으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엄청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과학이 발달한 현대시대에도 자연재해를 막기란 힘들다. 그러나 이젠, 미리 태풍의 방향과 그 세기를 예측할 수는 있다. 기상대에서 발표하는 날씨정보에 귀 기울여서 미리미리 축대나 물 빠지는 구멍 등을 관리하고, 아파트에서도 베란다의 창문을 테이프로 붙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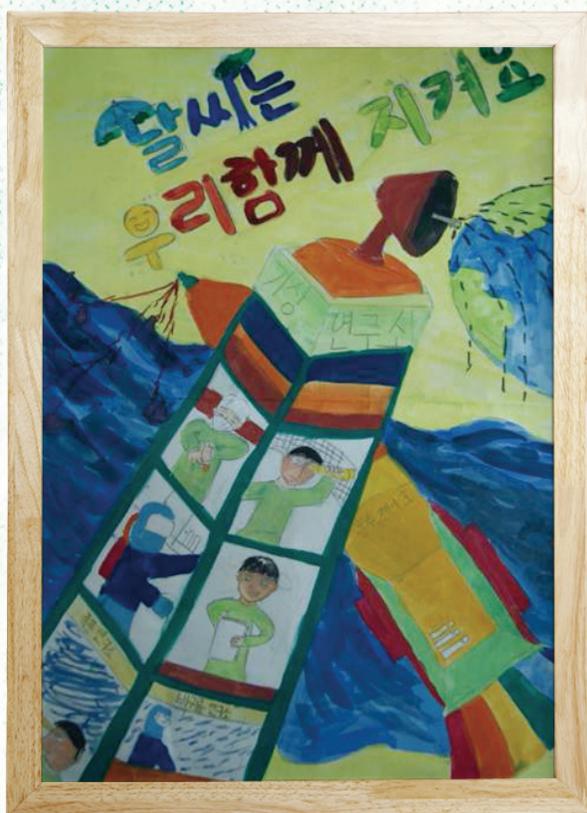
금상 '고추 말리기' 진혜원(광려초 3년)

준비한다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이번에 출품한 작품도 기상에보를 열심히 들은 가족이 다 같이 태풍 '다나스'에 대비하는 모습을 그렸다. 그림엔 뉴스에서 태풍 소식이 전해지자, 혹시나 있을 재해를 대비해서 창문에 신문지를 붙이는 등의 장면이 담겼다. 이렇게 출품한 그림이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기분이 무지 좋았고, 앞으로도 기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져서 생기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이다. 결국 사람이 만든 환경으로 인해, 상상조차 힘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뚜렷한 사계절 중, 언젠가는 봄과 가을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펐다. 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 지구온난화를 막아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먼저 생활 속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응모하면서 창원에도 기상대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현대에도 기상은 일상생활 뿐 아니라 다른 방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기상대에 방문했을 때 현재의 기상 관측이 고도화된 과학과 기술로 관측되고 예측된다는 사실에 놀랐다.



은상 '날씨는 우리 함께 지켜요' 주찬영(웅동초 5년)



영상회의시스템 체험

그동안은 기상캐스터가 전해주는 예보를 단순히 뉴스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젠 일상생활이나 여행을 갈 때, 또 농사를 짓거나 어업을 할 때에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들어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기상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뜻 깊은 시간을 마련해준 창원기상대에 고마움을 전한다.

「기상천외 UCC 공모」

최우수상을 받은 비결!



최윤영 / 홍익대 3년

시작은 예상치 못하게 내리는 소나기처럼 갑작스러웠다. 지난 9월 초, 우리는 긴 방학을 마치고 막 학교로 돌아온 대학생이었다. 몇 주 전과 다르게 낮아진 기온과 높아진 하늘은 어느새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알아채면서 새삼 지나가버린 시간들에 놀란다. 우리로 치자면 지나가버린 여름과 지나가버린 방학, 또 지나가버린 이십대의 초반들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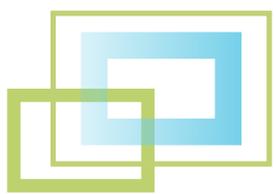
생각해 보면 지구는 끊임없이 돌고 계절은 계속 바뀌며 하늘과 산은 매일 변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 변화들 안에서 안주하며 살아온 듯하다. 그래서 학교 일이 더 바빠지기 전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로 했다. 마치 '온난전선'에 빠르게 다가와 새로운 전선인 '폐색전선'을 만드는 '한랭전선'처럼, 학교생활에 공모 출품을 병행하여 이전과 다른 상황을 직면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이번 공모의 참가팀명으로 각자 좋아하는 컬러의 이름을 넣어 '엘로우 민트'라고 정했다.

'폐색전선'이 두 전선이 부딪혀 비를 만들어 내듯 우리도 몇 차례의 비를 맞아야만 했다. 첫 번째 비는 학교생활과 UCC 공모 준비와의 시간 조절이었다. 같이 준비하기로 한 채화수 양 역시 영상·디자인 학부에 재학 중이고, 각각 제품디자인과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있다. 각과의 전공 교수님들께서 매일 내주시는 과제들을 모두 해 내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숙제였다. 만만치 않은 과제물의 양과



스케일에 우리는 여가 시간은 물론, 자는 시간마저 쪼개서 공모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공모에 도전하기로 한 이상 도중에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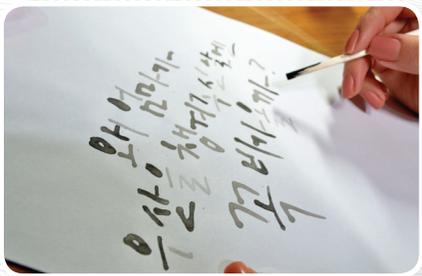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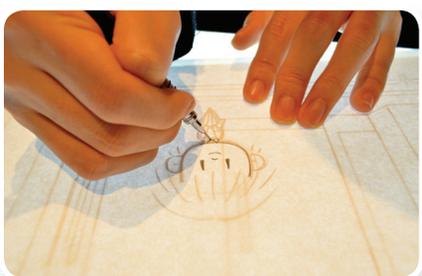
처음 우리는 3분 이내의 짧은 영상물로 날씨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내고, 그 이야기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요소를 이야기의 주제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너무 힘을 주지 않고 또 너무 심심하지 않은, 또 누구나 공감하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으로 정해 날씨와 관련짓는다면 꽤 괜찮은 구성이 이루어질 것 같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주제가 정해졌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는 늘 일기예보를 챙겨보시고는 자식의 옷차림을 신경 써주신다. 누구나 우산을 챙겨가라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 본 경험이 있고 공감도 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의 주제는 '일기예보의 비 예보와 어머니가 챙겨준 우산'이 되었다.



이야기는 한 아이가 바쁜 등교 준비를 하다가, 어머니가 우산 챙겨가라며 잔소리를 하자 짜증을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등굣길에 있는 사람들 중 우산을 들고 가는 사람도 없고, 하늘도 맑아 아이는 더욱 기분이 안 좋아진다. 하지만 오후에 비가 내리고, 가져온 우산을 쓰며 하교를 하게 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 결국 이야기는 어머니가 우산을 챙겨준 것에 대해 감사를 느끼면서 끝이 난다.



우리가 바쁘게 공모를 준비하게 된 데에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모든 영상에 들어갈 요소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이것은 더욱 거센 폭우처럼 다가왔다. 일상적이면서 따뜻한 모정이 느껴지는 이야기인 만큼, 영상에 들어가는 모든 그림들은 가벼운 그림체로 그리면서 말랑말랑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었다.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귀여운 느낌을 살리고자 노력했고, 모든 면에서 딱딱한 느낌이 아닌 약간 자연스러운 수작업의 느낌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밑그림은 물론, 채색에 있어서도 손으로 그리고 수채화로 칠한 듯한 느낌을 내었다. 그뿐 아니라 영상물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잠깐 등장하는 제목과 문구들도 모두 직접 쓰고, 배경음악도 직접 작곡하였다. 딱 우리가 원하는 분위기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작품은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그렇게 공모 준비를 마쳤다.



비가 그친 후 하늘이 맑게 개이고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한 차례 재밌고도 힘들었던 공모 준비를 마치고 작품을 제출한 얼마 뒤, 기상청에서 수상소식을 전해왔다. 더욱이 매우 감사하게도 최우수상이었다. 물론 우리가 작품 준비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다른 참가팀들이 만든 작품들도 모두 고생한 티가 났고 재밌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상을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오다니! 우린 서로가 무지 자랑스러웠고 무척이나 행복했다. 축하의 의미로 맛있는 외식을 함께 하기도 했다.



그 후, 주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기상청으로 가서 시상식도 하고 나니 어느새 계절은 가을을 지나 겨울이 되었다. 얼마 전에는 첫눈도 내렸는데, 눈 내리는 풍경을 보고 있자니 그것이 마치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려고 한다. 늘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는 날씨처럼, 늘 변화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 모두,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그것을 즐기기를 바란다. 비 온 뒤 굳어지는 저 땅처럼 한층 멋져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안녕하세요, 충주기상대입니다!”



서유미 / 충주기상대

“현재, 충북 일부지역에 열린 안개인 박무가 낀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후 차차 흐려져 밤늦게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



충주기상대로 발령받은 지 4개월이 지났다. 충주의 하루는 라디오방송으로 시작해서 라디오방송으로 끝난다. 우리 기상대는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날씨 정보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세 번 충주KBS와 충주MBC 라디오에 생방송으로 전달한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계장님께서 직접 방송을 하시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게다가 생방송이라는 사실에 방송 올림

증이 있는 나는 이 업무가 내 일이 되지 않길 바랐다. 하지만 남녀가 반반이었던 비율이 그만 인사이동으로 인해, 내가 충주기상대의 홍일점이 되고 말았다. 그 후 “아무래도 방송은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낫지 않을까?”라는 직원들의 응원까지 더해져, 결국 방송은 거의 내 담당으로 정해졌다.

첫 방송하던 날, 얼마나 떨렸는지 모른다. 카메라도 없고 방송 시간도 2분 남짓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방송을 위해 수화기를 잡은 내 손에 얼마나 많은 땀이 났는지, 또 원고는 얼마나 읽었는지 모른다. 드디어 “충주기상대를 연결해서 오늘과 내일의 날씨를 알아보게요.”라는 아나운서의 말이 들렸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차근차근히 미리 작성해둔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휴우… 그 2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두근두근하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생방송은 여전히 긴장감을 안겨준다. 2분 동안 말이 꼬이지 않게, 정확한 발음으로 기상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어떻게 2시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혼자 진행하는지, 아나운서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

처음보다는 익숙해졌지만 돌이켜보면 실수도 많았다. 말이 꼬여서 버벅대는 실수는 애교 수준이다. 하루는 점심 방송 때 아침 방송 원고를 복사해서 수정했는데, 현재 기온과 습도를 고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급히 방송 도중에 현재 실황을 찾느라, 방송에 한동안 정적이 흐르고 말았다. 아나운서도 당황했는지, “현재기온은요~”라고 운을 떼며, 내 방송 사고를 수습하느라 애를 먹었다. 지금은 웃음이 나는 순간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쥐구멍에 숨고 싶을 만큼 너무나 부끄러웠다.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동안이나 얼굴이 빨갱게 달아올랐다.

라디오 생방송이지만, 일기예보만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봄꽃 개화, 첫서리, 첫눈 등 계절별 이슈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일기예보 외의 기상업무를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 10월 중순, 충주 MBC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는데, 기상청의 계절 관측 중 하나인 유명산 단풍 관측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난생처음 방송국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녹음도 하고, 진행 모습도 실제로 보게 되어서 뜻깊은 경험이었다.

‘지역 방송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저기서 내 목소리를 들었다고 제보(?)를 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남편 회사의 과장님께서 “집에 가며 듣는데 기상대에서 날씨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잘 듣고 있어요~” 하시는 게 아닌가! 남편한테도 민망해서 듣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은 추석연휴 전날, 기상청 동기한테서 연락이 왔다. “고향 가는 길에 라디오를 듣는데, 갑자기 충주 기상대에 연결한다더니 네 목소리가 나오더라?” 아뽀싸, 그날따라 많이 버벅거렸는데!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라디오를 들으며, 일기예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기온을 지역별로 세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라는 PD의 요구에 ‘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날씨정보를 듣고 있구나!’란 생각이 들어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됐다.

스마트폰 앱이 보급화가 많이 되어서 라디오로 날씨정보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지만, 아직도 이런 아날로그 정보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어깨가 무거워진다. 단순한 예보 전달자가 아닌, 우리 지역의 실정에 꼭 맞는 정확한 날씨정보 전달에 힘을 쏟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보의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는가도 그만큼 중요하니까.

오늘도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렇게 말한다.

“안녕하세요, 충주기상대입니다!”



내게 주어진 네 가지 **삶**



이윤교 / 항공기상청 예보과

누구나 인생이라는 길고도 짧은 여정을 주변의 많은 이들과 함께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과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또 다른 자신을 만들어간다.

작년에 결혼과 함께 내게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고, 이를 계기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나에겐 어떤 삶들이 주어졌을까?’, ‘나는 그런 삶들을 통해 무엇을 얻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있을까?’ 등등 여러 생각들이 스쳐갔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게는 네 가지 정도의 소중한 삶들이 보였다. 이 중에서 세 가지는 지금 살아가는 삶이고, 한 가지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삶이다.

그 첫 번째, 바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가족 안에서의 삶**이다. 사전적으로 가족이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의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혼 전, 내게 가족의 의미는 아빠, 엄마, 언니들, 동생, 조카들, 형부들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복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었다. 그러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란 가족이 늘어났다.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 들어온 것이다. 물론 적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다 보면 잘 적응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이 곧 나의 행복과 기쁨이 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지금처럼 가족들과의 삶이 행복하게 지속되기를 바란다.

두번째,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의 삶**이다. ‘좋은 친구가 없는 사람은 뿌리 깊이 못한 나무와 같다.’란 말이 있다. 주변에 좋은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 찾아본다면, 나는 날 위해 울어줄 친구 3명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 친구들이 행복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그 친구들에게 슬픈 일이 생긴다면 마치 나의 일과 같이 걱정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이다. ‘친구란 좋은 술과 같다.’라는 말처럼, 잊고 살다가도 한잔만 마시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존재인 것 같다. 아주 가끔씩 전화해서 만나더라도 몇 분 전에 얼굴 보고 헤어진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있고, 얼굴 붉히며 다투더라도 금방 화해하

고 웃을 수 있는 친근함이 있는 존재 말이다.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고 나와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세번째, 항공기상청에서 일하는 **직장인으로서의 삶**이다. 고등학교 시절에 누군가 내게 꿈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비행기를 바라보고 살고 싶다.”라고 답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삶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은 공항에서 수많은 비행기를 보면서 살고 있다. 한 번도 비행기와 떨어진 삶은 생각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안 할 것 같다. 나는 기상이 좋아 기상청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좋아 항공기상청에 입사한 것이다. 그러기에 세월이 지나 기상청을 떠나야 하는 날이 오더라도, 비행기와 함께 할 수 있었던 항공기상청에서의 삶은 내게 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 남을 것이다.

지금도 가끔 답답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날아오르고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기운을 차리기도 한다. 비행기라는 과학의 집합체가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뜨는 모습은 내게 작은 설렘으로 다가온다. 도착하는 비행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른 출발을 위한 준비이기에 새로운 무언가를 다시 하리라는 기대감으로 나의 입가에 살포시 미소 짓게 해 주는 것 같다. 앞으로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비행기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에 도전하고 그것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차분히 준비해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네 번째, 바로 **엄마로서의 삶**이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기에 살짝 겁도 나고 기대도 되지만 초, 초, 초! 긍정의 마인드로 잘해 나가리라 믿는다. ‘스스로가 행복하면 아기도 행복할 것이고, 아기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것이기에 행복해지자!’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이 소중한 삶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여 살아야겠다. 물론 힘들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지금껏 헌신과 열정으로 살아오신 우리 엄마를 비롯한 그 많은 엄마들이 모두 겪고 헤쳐나간 일기기에,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앞을 보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것이다.

내게 주어진 이 네 가지의 삶은 어느 한 가지 중요하지 않은 삶이 없기에 항상 감사하며, 앞으로도 배려와 사랑을 통해 그 삶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 번 나 자신을 다독여 본다.



문산기상대, 파주기상대로 거듭나다



장민준 / 파주기상대



지난 11월 18일, 대전지방기상청과 파주시간의 업무협약식과 파주기상대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정부 3.0시대 지역민의 염원을 기상대와 지자체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하여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파주기상대는 1990년대 후반,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위험기상현상의 효율적 감시와 기상관서가 없는 지역의 기상정보 생산, 제공 및 방재업무지원을 위하여 2001년 12월 1일 '문산기상대'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그 후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의 기상 업무를 관장하면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상기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종관 기상관측장비를 비롯한 라이다, 초음파식적설계, 낙뢰관측장비, 라디오미터, 연직바람관측장비 등을 설치, 운용하면서 한반도로 접근하는 하늘 상태를 제일 먼저 파악하는 기상관서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민들은 문산기상대가 과거 수해 상습지인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하여 수해로 입은 피해를 떠올리게 하고, 파주시 중심부보다 북쪽에 떨어져 있어 겨울철 유난히 추운 곳이며, 날씨예보도 '문산'으로 발표하여 파주시 중심부의 날씨예보와 차이가 있어 시의 대외 이미지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 기상관서의 이름이 시·군 명칭과 일치하는데, 문산기상대만 읍 소재지 명칭을 쓰고 있어 그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러한 주민들의 입장을 대표하여, 파주시는 기관 명칭을 문산기상대에서 '파주기상대'로 변경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문산기상대는 지난해 말부터 파주시장을 비롯한 관련부서장, 담당자들의 방문과 면담을 통해 이 문제를 협의하였다. 특히 지난 6월엔 파주시가 제출한 기상대 명칭 변경을 위한 지역주민 10,618명의 건의서를 받기도 했다.



그 결과, 기상청은 지역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여 명칭 변경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7월 초엔 기상대 담당자를 비롯한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실무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는 결론과 함께 파주기상대로 명칭이 결정됐다. 또한,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파주시 중심부의 '금촌 방재기상관측장비(AWS)'의 관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도 내렸다. 그래서 이 내용을 파주시에 전달하여 금촌 방재기상관측장비를 파주시 중심부 남쪽에 위치한 주말농장 부근에 이전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융합행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을 것을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8월,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에서 파주시민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명칭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올 하반기에 명칭이 변경됨을 전하고,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금촌 방재기상관측장비의 환경 개선에 관해서도 발표하였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10월 16일, 환경부령 제520호에 의거하여 문산기상대라는 이름을 벗고 파주기상대라는 더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어 11월 18일, 파주기상대는 융합행정을 통해 파주시와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고 더 나은 기상기후분야 서비스 제공과 최적의 관측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지방기상청-파주시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파주기상대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현판식도 무사히 치러내 큰 호응도 얻어냈다.

이번 기상대 명칭 변경을 통해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결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과 소통하며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상청 이미지 증대에 파주기상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Christmas

솔로 생존기



드디어 솔로부대에 첫눈 공습이 내렸다. 거리곳곳의 휘황찬란한 불빛들은 두렵기만 한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다행히도 곧 닥쳐올 이 '크리스마스 대란'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암담하기만 했던 지난겨울의 나는 더 이상 없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완벽한 계획을 실행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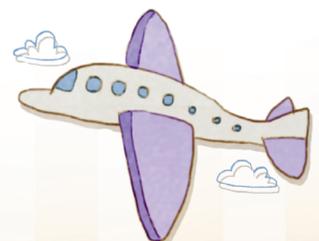
크리스마스에 같이 보낼 남자친구라도 생겼냐고? 음~ 그럴 리개! 대신 내겐, 10년 넘게 끈끈한 우정을 자랑해온 여고동창들이 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마지막 이십대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해서 함께 보내기로 한 것이다. 뭐, 공교롭게도 다들 솔로인 것도 한몫했다. 후훗~ 솔로들의 이 단결력이란! '덕분에 올해는 외롭지 않겠구나.' 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슬프게도 난 매년 혼자였으니까 말이다.

여자친구들과의 '파자마 파티', 왠지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근사한 모임 같아서 내심 기대도 됐다. 준비성 하나는 타고난 나이기에 모든 진행을 도맡았다. 정말 이렇게 한자리에 다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여고 졸업 후 처음 갖는 파티가 조금 감격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모두에게 기억에 남을 크리스마스를 만들기 위해, 색깔별로 우정 파자마를 깜짝 선물로 주문하기도 했다.

준비하면서 은근 신경 쓸 일이 많았지만, 친구들이 좋아할 모습을 생각만 해도 기쁜 나날이었다. 우리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도 만들고, 할인서비스를 받기 위해 호텔도 미리 예약하고, 풍선장식 등 파티용품도 사놓고, 와인과 음식 메뉴도 정해놓고... 헤헤! 정말 침대에서 방방 뛰며 어릴 때처럼 벅개싸움도 하다 보면, 예전 여고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흥겨울 것만 같았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불과 며칠 앞두고 하나들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리얼해, 나 해외로 출장하게 됐어.”
 “어찌지? 얼마나 다치셔서 간호해야 될 것 같아.”





중요한 회사 일과 집안 일이 겹쳤더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필 파티를 앞둔 지금 그런 일이 생기다니! 그렇다고 못 가게 됐다며 너무도 아쉬워하는 친구들을 타박할 수도 없었다. 더욱이 둘만 남은 상황에서 파티를 진행하기에도 애매해졌다. 공들여 준비한 파티가 이렇게 허무하게 취소되다니...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컸다. 그래도 어찌겠는가. 눈물을 머금고 호텔 예약을 취소해야겠다고 친구들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 와인과 음식, 풍선 장식 등을 준비해놨었다며 친구들에게 살짝 투정을 부렸는데... 요것들이 또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다.

“어거, 그걸 다 준비해뒀 말이야? 그럼 그거 내가 써도 되잖아?”
 “이왕 취소할거면, 그냥 나한테 싸게 팔면 안 돼?”

이건 또 무슨 상황인지! 결국, 나의 끈질긴 취조 끝에 양심고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



“실은 남자친구 생겼거든, 그날 같이 보내기로 했는데 예약이 다 잡혀 댜어~”
 “동호회에 맘에 드는 사람이 생겼는데, 모임 장소로 거기가 딱 좋을 것 같아!”

그랬다. 내가 한창 우정 파티를 위해 바빠 움직이고 있을 무렵, 요것들은 소개팅에다 미팅 파티에다 동호회 모임까지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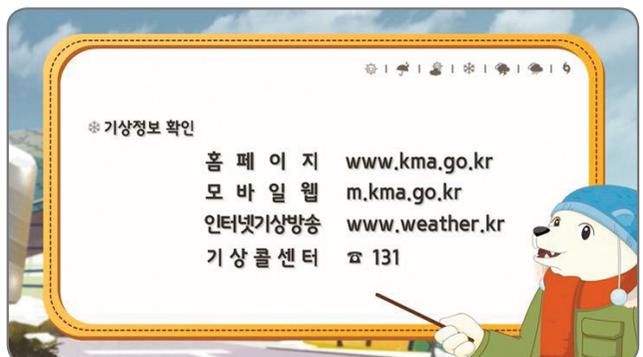
솔로친구들과의 크리스마스 파티 동맹은, 정말 깨지기 쉬운 거였다.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굳건했던 걸까? 친구들이 파티 준비하는 날 보며 믿음이 간다고 했던 말이, 사실은 솔로 탈출 가능성이 제일 낮아보였다는 뜻은 아니었을까?

20년지기가 출연한 영화 <나 홀로 집에>의 케빈을 배신하는 게 아니었다. 원래 그랬던 것처럼 연말특선을 내리 보든지, 아니면 비축해둔 음식들을 죄다 흡입하고 기절하듯 겨울잠에 빠져들었다면 이런 험한 꼴 당하지 않았을 텐데!

솔로에겐 너무도 가혹한 연말이다.
 과연 내년엔 불우한 이 솔로에게도 따뜻한 봄이 올 수 있을까?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추운 겨울 미리 대비하세요



10일
예보

생활의 반올림# 10일 예보

엄마의 사랑을 반올림합니다.

“ 맞벌이로 바쁜 우리 엄마, 이불 빨래도 해야 하고 할머니 댁에도 가야하는데... ”

“ 갓 태어난 우리 아기, 예방접종 맞으러 가야 하는데... ”



10일 예보 확인!
이번 주말엔 비 예보, 할머니 댁에 가고 다음 주말은 맑음 예보, 이불 빨래 하는걸로!



10일 예보 확인!
맑은 하늘에 따뜻한 날씨인 날로 병원 예약 완료! 아기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다오~

10일
예보

생활의 반올림# 10일 예보

아빠의 취미를 반올림합니다.

“ 동호회에서 자전거 타러 가야 하는데, 비 오면 곤란해... ”

“ 회사에서 단체로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는 다가오는데... ”



10일 예보 확인!
이번 주말엔 비 예보, 집안일 도와야지 다음 주말은 맑음 예보, 여보~ 나 자전거 좀 탈게~



10일 예보 확인!
이번 주말엔 비 예보, 가족들과 영화를 보고 다음 주말은 맑음 예보, 부장님 마라톤 연습하시죠~

10일 예보로 생활을 반올림하세요!

음악에서 반올림(#)은 반음을 올려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반올림을 하면 더 경쾌하고 밝은 느낌이 납니다.

10월부터 시작하는 10일 예보로 국민 생활을 경쾌하고 밝게 반올림 하겠습니다.



기상청-방위사업청 업무협약 체결(11.26)

기상청은 방위사업청과 '기상관측장비 국산화 연구개발 활성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취약했던 기상관측장비 개발 분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진



기상기후산업 활성화 포럼 개최(11.12)

기상기후산업 전문가, 기상사업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상기후정보의 부가가치 창출이 목표인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기상기후산업의 역할과 정책방향 포럼」이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고창·보성 표준기상관측소 정책탐방(11.14~15)

기상청 출입기자들이 최적의 관측환경과 표준관측시설을 조성하여 기상장비의 성능시험 및 비교관측 실험을 하는 고창과 보성의 표준기상관측소로 정책탐방을 다녀왔다.



겨울철 기상전망 브리핑(11.22)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기상전망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엔 기온의 변동 범위가 크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올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2013년 하반기 기상고객협의회 개최(11.27)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해운조합 등에 소속된 20여 명의 외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기상전망 및 방재대책,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2013년 겨울철 방재대응 점검회의(11.29)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13.12.1.~'14.3.15.) 동안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재대책을 점검하고 각요를 다지는 점검회의를 국가기상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청소년-기관장과의 대화(11.29)

조주영 차장이 수도여자고등학교에 찾아가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 그리고 기상청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학생들의 재기발랄한 질문도 이어져 친근한 소통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여럿이 하나되어 즐거워 Quiz!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5분의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번 달 퀴즈

- 기상청이 선진예보시스템을 구축한 점을 인정받아 행정기관 부분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대회는?
① 대한민국 지식대상 ② 대한민국 전문대상
③ 대한민국 교양대상 ④ 대한민국 학문대상
- 뉴질랜드의 가장 큰 도시이며 하루에도 날씨가 수없이 바뀌는 곳은?
① 에든버러 ② 오클랜드 ③ 하롱베이 ④ 리버풀
-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 문산기상대에서 새롭게 변경된 이름은?
① 서산기상대 ② 청주기상대 ③ 파주기상대 ④ 보령기상대

지난 달 퀴즈 정답

- ④ 산막이 옛길
- ④ 시치미
- ③ 대구기상과학관

※ 11월호 정답 중 '①설국열차'를 '①화룡점정'으로 바로잡습니다.

지난 달 퀴즈 정답자

- 박윤식(서울) 2. 한우림(경기)
- 임한나(세종) 4. 고경은(경북)
- 김중호(전남)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12월 25일까지 전자메일(kimhy80@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 · 주소 ·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인사발령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전보	12.1	기상청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관	구순모
		관측기반국	국가태풍센터	기상사무관시보	변건영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상사무관	윤왕선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기상사무관시보	김지현
		강원지방기상청	기후과	방송통신사무관	지익환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센터	기상연구관	이철규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기상연구관	박순천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구과	기상연구관	차주완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승진	12.1	강원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행정사무관(임정)	이현숙
		국립기상연구소	응용기상연구과	기상연구관	남경엽
명퇴	12.2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센터	기상사무관	허 관
파견근무	12.4	기상청	창조계획기획단	기술서기관	정준석
				기상사무관	이용섭
				기상사무관	선지홍
				기상연구관	김상백
				기상사무관	박수희
	12.12			일반직고위공무원	이희상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
수백년 자란 숲을
태웠습니다



남기고 떠난 불씨들이
수많은 동물들의
보금자리를 태웠습니다



습관적인 당신의 방심이
큰 산불이 되었습니다

산불

작은 불씨가
모두의 내일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당신의 방심 한번이 큰 산불이 됩니다.

산불예방!

녹색 미래를 지키는 행복한 습관입니다.

산불 예방은

지금부터



산불 조심은

내부터



우리의 삶

함께 지켜요

“생각은 현실로, 상상은 가치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창조경제



2013. 12. 12(목)~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전시

- ZONE1. 아이디어관 |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전과정 체험
- ZONE2. 도전관 | 스타트업의 제품·서비스 전시, 투자 상담
- ZONE3. 성장관 | 중소·벤처·중견기업의 기술·서비스 전시
- ZONE4. 상상관 | 상상·동반성장 지원프로그램 소개

부대 행사

첫째 날 행사 (12일)

- 개막식
-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 시상식 (산기협)
- 창조경제 공감 콘서트 (중기중앙회)

셋째 날 행사 (14일)

- 글로벌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경연(무역협회)

- 스타트업 오픈 리크루팅데이 (12일~13일)
- 네트워킹 파티 (12일~14일)

둘째 날 행사 (13일)

- 대기업 벤처육성 사업 설명회 (전경련)
- 창조경영 활성화 컨퍼런스 (대한상의)

넷째 날 행사 (15일)

- 스타트업 2013 (창의재단)

- 클라우드 펀딩 컨퍼런스 (12일~13일)
- 특별강연 (14일~15일)

주최



대한상공회의소

FKI 전국경제인연합회

KBIZ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ahp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KOVA (사)벤처기업협회

후원

